진화하는 동학개미

63兆 실탄 개미원정대 해즈브로 등 글로벌 탐험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직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주식거래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새로운 종목 발굴에도 나섰다. 기존 애플, 아마존 등 국내에 잘 알려진 글로벌 대기업을 주로 매수했다면 이제는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해외 우량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해외 주식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 데다 해외 주식투자시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낼 수도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기준 올해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514억달러(약 62조 9753억원)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거래액인 410억달러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해외주식 거래는 글로벌 주가가 급락했던 3월부터 '폭증'했다. 이때 수익률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4, 5월 거래규모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4.1%, 294.6%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규모 514억 달러 돌파
장난감·항공사 등 개인 투자성향 반영
한정적 정보·높은 세금은 유의해야

해외주식투자 경험을 쌓은 개미(개인투자자)들은 5월 들어 새로운 종목 발굴에 나섰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미국의 애플, 알파벳(구글), 테슬라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올 5월에는 순매수 상위 1위에 '해즈브로'라는 미국 장난감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달들어 순매수 규모는 12억달러를 넘어섰다. MS 순매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해즈브로는 해외 언택트(비대면) 수혜주로 개미의 이목을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의 장난감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해당 종목을 분석한 투자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개미들은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서 '해즈브로'를 검색하면 해당 기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이 여러개 나온다.

또 나스닥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INVSC QQQ S1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상위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성장주에 베팅하는 지수로 3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성향을 가진 개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주식 뿐만 아니라 뱅가드 단기회사채 ETF(3위), 아이셰어즈 아이박스 미국달러표시 투자등급회사채 ETF(4위) 등 회사채 ETF도 대거 순매수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단기회사채 가격이 폭락하자 미국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워런 버핏도 손절했다는 항공주 델타항공도 스타벅스 못지않은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대형 항공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워런 버핏과 반대 방향의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의 높은 성장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국내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서 "또 증권사의 해외주식거래시스템이 쉽고 간편해졌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해외 주식투자 열풍을 분석했다.

다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무작정 투자에 나서선 안 된다. 해외 주식거래는 세금 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어 수익을 낸 만큼 받을 수 없어서다.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낸다.

가령 올해 해외주식거래로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4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한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한다.

15.4%의 배당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되지만,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배당소득세율 10%를 제외하고 받았지만 국내에서 나머지 소득세 4%,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내야 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해외 주식 결제 규모〉

연도	2019			2020		
월	매도	매수	매도+매수	매도	매수	매도+매수
2월	1,365.32	1,636.37	3,001.69	3,898.07	4,323.78	8,221.85
3월	2,083.08	1,800.27	3,883.35	6,517.64	7,244.77	13,762.41
4월	1,412.15	1,660.16	3,072.31	5,065.63	7,349.03	12,414.66
5월	1,582.58	1,558.57	3,141.15	5,354.55	7,041.89	12,396.44

단위 : 백만 USD /한국예탁결제원

코벤펀드 살린 개미들 10% 깜짝수익률 "봤지"

코스닥 지수 급등에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 수익률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국면 속에 성장주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의 시장 영향력 확대로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며 코벤펀드의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한동안 외면하던 투자자들이 코벤펀드에 다시 시선을 돌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 코벤펀드, 3개월 수익률 10%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코벤펀드 13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9.97%를 기록했다. 전체 테마유형 중 헬스케어펀드(14.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 달 이상 수익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띈다.

설정액 1529억원으로 코벤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KTB코스닥벤처는 3개월 동안 10.53%의 수익률을 올렸다. KB코스닥벤처기업소득공제 펀드가 14.42%로 코벤펀드 중 가장 높았다. 이 상품의 운용을 담당하는 최희은 액티브운용본부 과장은 "언택트·전기차·의료기기 등 성장주 비중을 많이 편입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13종 수익률 추이〉

펀드명	1개월	3개월	6개월
KB코스닥벤처기업증권	16.64	14.42	20.38
KB코스닥벤처기업소득공제	16.47	14.19	20.24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	6.69	14.17	18.71
현대코스닥벤처	10.38	10.38	16.04
브이아이코스닥벤처	10.72	18.57	15.61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	9.05	10.53	11.13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	7.46	8.42	9.46
KTB코스닥벤처2	6.37	9.85	7.84
KTB코스닥벤처	7.24	10.54	7.1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	13.63	12.03	5.27
미래에셋코스닥벤처	5.42	3.52	-0.88
브레인코스닥벤처	2.23	-2.94	-9.39
에셋원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	1.02		

/에프엔가이드

공매도 금지·개인투자자 영향력 확대
코스닥 지수 강세로 3개월 수익률 10%
공모주시장 활기 찾지못한 것도 호재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닥지수가 수익률에 반영됐다. 1일 코스닥 지수는 연초(674.02)보다 0.00% 오른 000.00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때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3월 1일(627.66)과 비교하면 0% 대로 급등했다. 이 기간 코벤펀드는 9.97%의 수익을 거뒀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목표로 2018년 4월 출시됐다. 투자금 절반 이상을 새로 상장한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벗어난 지 7년 이내인 기업의 주식을 담는다. 코스닥 기업 약 50%가 이 요건에 속한다.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의 최근 1개월 상승률은 10.79%, 8.8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 벤처기업부는 10.59%, 기술성장기업부는 19.75% 올랐다. 코벤펀드가 상승궤도에 접어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모주 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활기를 찾지 못한 것도 호재다. 기업가치 저평가와 위축된 투자심리가 코벤펀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11곳)보다 늘어난 15곳. 코로나19 여파로 상장을 미루던 기업들의 공모 일정이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메자닌 채권 등 벤처기업 신주와 코스닥 구주를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 담는 코벤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해서 배정받는다. 공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신규 상장 기업들이 전염병 종식과 함께 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큰 폭의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최희은 과장은 "코벤펀드의 전체 자금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강세가 유지되고 합리적인 선에서 공모가가 형성된다면 자금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높은 수익률에도 설정액 감소… 왜?

높은 단기간 수익률에도 빠져나가는 자금은 고민거리다. 올해 들어 518억원이 유출됐다.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도 최근 한 달 유출금액이 60억원에 그치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출시 이후 40% 이상 빠져나간 설정액에서 알 수 있듯 코벤펀드의 그간 인기는 썩 좋지 못했다. 나온 지 한 달 만에 사모와 공모를 합해 2조원 가까운 자금을 모을 정도로 초반엔 급격하게 몸집을 불렸으나 잠시뿐이었다. 1조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결정타였다. 사모 코벤펀드가 대부분 폐쇄형 구조로 이뤄진 탓에 중도에 돈을 뺄 수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소득공제 혜택이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크다. 코벤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3년이 지나야 투자금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이 안 된 시점에 환매할 경우 투자 금액의 3.5%를 추징한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민감도가 강한 코스닥 시장, 그것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지수가 하락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공제 요건이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KB굿잡 취업박람회, 온라인 전환 개최

KB국민은행은 1일 KB굿잡 사이트를 통해 300여개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사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오는 1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17회째를 맞는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 수만 31만7000여명에 달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현재까지 총 2972개의 구인기업이 참가하며 취업박람회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300여개 구인기업 모집에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는 등 준비단계부터 성황을 이룬 이번 '2020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당초 오프라인 현장박람회를 기획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취업박람회로 전환해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PC 및 KB굿잡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박람회 참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입사지원과 입사 제의를 실시간 쌍방향으로 지원함은 물론 이용 매체별(PC/APP) 이용가이드를 제작·운영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온라인 박람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기업의 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오프라인 취업박람회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최대 1.3%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